



서명수 | 협성대

## 1. 시작하는 말

자연과학이 아닌 인문학 분야의 연구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문화적, 풍토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서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성서 본문 자체가 넓게는 고대 중동, 작게는 고대 팔레스틴 지역의 정치, 종교, 사회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충분한 고려와 고찰은 필수적이다. 여기에 더하여 그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해석자 역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처한 사회와 문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본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텍스트가 품고 있는 삶의 자리 자체가 가치중립적 성서해석이 최상의 해석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석자 역시 자기가 처한 삶의 자리에 충실하여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성서해석사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살펴볼 때 기독교의 교리사는 성서해석사와 궤를 같이한다. 초기 기독교가 제도와 되는 과정에 크게 기여한 기독교 사상가들(교부들)은 자신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교회적 현실을 고려하여 성서를 해석하였으며, 종교개혁자와 종교개혁의 이념을 충실히 뒷받침하고자 했던 개신교 스콜라학파의 학자들 역시 그러하였다. 이후 성서해석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유럽의 학자들 역시 크게는 ‘유럽적인’ 성서해석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보다 고등적인 차원에서 성서해석이 시도된 19세기를 거쳐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보다 가시적인 지역적 경향성을 띠게 되었다. 지역 내 풍부한 신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던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소위 ‘신화와 제의학파’가 형성되었고, 유럽문화의 원류의식이 강했던 독일에서는 ‘알트-노트학파’가, 청교도의 후예의식이 강한 미국에서는 보다 보수적이고 고고학적인 ‘올브라이트학파’가 형성되어 20세기 성서학계를 풍요롭게 장식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문적 성서해석의 역사가 채 100년도 안 되는 한국에서 한국적 성서해석의 독자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좀 이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 성서학자들의 양과 질을 고려해볼 때 이제는 논의의 불을 지필 단계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간 한국의 구약학에 관한 진단들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대체로 일과성에 그치지 십상이었고, 미래에 대한 전망들이 제시되긴 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대안적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sup>1)</sup>

1) 그간 진행된 한국의 구약학에 관한 총람(survey)식 연구들을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라. 황성숙, “한국 구약학의 역사: 구약에 관한 자료를 통해 고찰한.” 『신학연구』18(1977), 195-224. 문희석, “한국교회 구약성서 해석사: 1900-1977.”(서울: 기독교서회, 1978). 민영진, “1970년대 구약신학.” 『신학사상』36(1982), 5-36. 김의원, “한국 구약신학의 진단.” 『개혁사상』2(1989), 48-71. 임태수,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전망.” 『한국기독교신학논총』22(2001), 99-117. 왕대일,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진단과 전망.” 한국문화연구원(편), 『신학연구 50년』(서울: 도서출판 헤안, 2003), 47-92. 한동구,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전망(1): 연구 방법론과 오경.” 『한국기독교신학논총』50(2007), 5-48. 이형원, “Trends in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and Proposals for the Futur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57(2008), 5-24. 왕대일, “Retrospect and Prospect of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구약논단』37(2010), 12-26. 박동현, “구약학의 흐름과 미래.” 김동건(역음), 『신학이란 무엇인가: 구약학에서 신

## 2. 한국적 성서해석을 시도했던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간략한 개관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 연구자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그리고 서구 중심의 성서학 연구에 익숙했던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한국인으로서, 나아가 아시아인으로서 나름의 토착적 성서해석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는지도 모른다. 지금 한국적 구약학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이 시점에서 그간의 주요 연구들에 대해 일별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그동안 눈여겨 볼만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적잖은 위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은 방법론이나 연구경향성에 맞추어 분류할 만큼의 양은 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는 편의상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먼저 눈에 띄는 작업은 박종수의 시도이다.<sup>3)</sup> 그는 여기서 설화비평/서사비평(Narrative Criticism)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이미 신문화비평의 한 갈래를 자세히 소개한 것은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적절한 시점이라 평가된다. 저자가 “한국인의 문화통전적 성서이해”라는 부제를 붙은 것은 제3장 “히브리 설화의 유형과 구조-히브리 설화와 한국 설화의 만남-”(45-96쪽) 때문이다. 여기서 저자는 창세기의 창조기사(창1:1-2:4a)와 한국의 무속전통에서 이어져 온 서사시 창세가(創世歌)를, 홍수설화(창6:9-9:19)와 한국의 두 개의 홍수설

---

학의 조망까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41-71. 김상래, “한국인 구약학 박사학위에 나타난 학문적 경향 분석,” 「구약논단」,39(2011), 179-206. 한동구(사회), “구약논단 50집을 맞이하며: 회고와 전망.” 「구약논단」,50(2013), 15-29. 이외에도 그간 한국의 구약학자들이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연구한 것들에 대한 최근의 종합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강성열, “한국의 구약학: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제98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61-304를 참고하라.

2) 저서들을 편의상 출간 연대순으로 검토하지만 저서의 많은 부분들이 기존에 논문형태로 발표했던 것을 다듬어 재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순서를 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저서 형태로 묶어내지 않은 여러 연구자들의 개별 논문들이 다수 있지만 여기서 일일이 취급할 수 없어 아쉬울 뿐이다. 추후 ‘한국적 구약학 연구 자료집’을 학회 차원에서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 싶다.

3) 박종수, 「히브리 설화 연구: 한국인의 문화통전적 성서이해」, (안양: 도서출판 글터, 1995).

화(홍수와 남매설화; 홍수와 산상거목 계수나무의 아들 목도령(木道令) 설화)를, 소돔과 고모라 전설(창19:1-26)과 장자뭇 전설을, 벨엘전설(창28:10-22)과 미르사 전설을, 모세의 일생(출2-6장)과 유충렬전을,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창22:1-14)와 손순매아 이야기를, 솔로몬의 판결과 지혜로운 원님 이야기 등을 비교하고 있다.<sup>4)</sup>

박종수의 이와 같은 연구는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연구이며, 한국적 구약학의 가능성을 모색한 눈에 띄는 시도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이후 이런 긍정적인 후속 연구를 내놓지 않았으며, 학계에서도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종수는 현재 분석심리학에 심취해 있으며, 자신의 전공을 ‘성서심리학(Biblical Psychology)’로 설정하고 있다.

박정세는 박종수와 유사하게 성서의 이야기들과 한국 민담을 비교하여 문학적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유사성과 차이점들에 주목한 바 있다.<sup>5)</sup> 그러나 박정세는 성서학자, 특별히 구약학자가 아니기에 여기서는 그의 저서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조철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와 한국의 고대설화를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보편성을 들춰내고 있다.<sup>6)</sup> 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별자리와 견우직녀도, 환웅과 지하수 신 엔키, 성혼례의 서자, 엔키와 환웅, 주몽의 활과 처용의 노래를 다윗의 춤과 노래와 비교하는 것 외에도 한국의 다양한 설화를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들과 비교하고 있다. 그 내용의 다양성과 풍부성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구약성서에 들어있는 고대 히브리 설화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 구약학 연구자들에게는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박신배는 『태극신학과 한국 문화』라는 저서에서 “토착화 신학과 성서”, “풍류신학과 성서”, “구약의 출생과 한국 문화”, “제사장 전승과 한국문

4) 여기서 사용한 ‘설화’, ‘전설’ 등의 용어는 박종수가 구분하여 사용한 것을 그대로 옮겨놓는다.

5) 박정세,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6) 조철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신화의 비밀』 (서울: 김영사, 2003).

화”, “시편과 한국 문화”, “구약의 평화와 통일신학”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 신학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태극신학”, “통일신학”, “한의 신학”, “무궁화 신학” 등을 다루고 있다.<sup>7)</sup> 그가 한국적인 것과 접목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제들을 동원하여 검토한 것은 긍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의 밀도 면에서 볼 때 ‘열거’의 수준을 넘어 하나하나 좀 더 치밀한 논구가 필요하며, 태극신학의 ‘주창’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데, 단순히 주창으로 끝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학문적 작업으로, 더 심화된 후속 작업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적 구약학의 광맥을 캐는 작업이 될 것이다.

정중호는 『새로운 성경해석 한국적 해석 서론』라는 저서에서 “저자 중심 해석(역사비평학)”(제2부), “본문 중심의 공시적 해석방법”(제3부), “독자 중심 해석”(제4부), “새로운 해석”(제5부)로 나누어 해석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sup>8)</sup> 그렇다면 그는 왜 “한국적 해석을 위한 서론”을 제목으로 병기(併記)한 것일까? 그는 제1부 2장(“한국적 성경해석의 역사”)와 제3장(“한국 경전 해석-한국적 성경 해석을 위한 서론”)에서 한국적 해석의 역사와 필요성에 대해 살피고 있다. 그는 여기서 광암 이벽, 다산 정약용의 경전해석의 방법과 특징, 그리고 지식층을 위해 한문으로 『동경대전』을, 민중들을 위해 언문으로 『용담유사』를 남긴 수운 최제우에 주목하여 살피고 있다.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해석의 공통점은 경전에 충실한 경전 중심의 해석일 뿐만 아니라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실제 상황 중심의 해석을 하였으며,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해석과 다경전적 상황(multi-scriptural context)에서 해석공동체의 특성을 중시하는 해석을 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저서의 대부분을 서구의 해석 방법론 소개에 할애하고 있지만

7) 박신배, 『태극신학과 한국 문화』 (서울: 동연, 2009).

8) 정중호, 『새로운 성경해석 한국적 해석 서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10).

제1부 3장에서 보여준 다산과 수운의 경전 해석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한국적 구약학의 가능성 모색에 있어서 필히 참고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러 문헌 소개 역시 소중한 자료 발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저서 역시 박종수의 저서처럼 학계에 적극 소개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이이라면 박종수는 최근 분석심리학에 심취해 있는 반면 정중호는 한국적 제도와 구약시대의 제도들에 대해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다.<sup>9)</sup> 이점에 있어서 향후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왕대일은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sup>10)</sup> 그는 지난 백여 년 간 서구 구약학계를 지배해왔던 통시적 접근을 세밀히 검토하면서 공시적 접근의 중요성을 『새로운 구약주석-이론과 실제-』(2000)에서, 그리고 이 저서의 개정판에 해당하는 『구약주석 새로 보기』(2005)에서 보다 분명히 제기한 바 있다. 그러다 마침내 『기독교 경학(經學)과 한국인을 위한 성서해석』에 이르러서는 보다 새로운 차원의 해석방법론, 즉 “기독교 경학”을 제시하는데, 그는 “경학은 한편에서는 경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독법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경전을 해석하는 사람을 빚어가는 “물레””(10쪽)라고 정의하고, 이 바탕 위에서 성서해석의 방법론보다는 성서해석의 자세에 관심을 갖고, “말씀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는 수지독송(受持讀誦)의 중요성과 필요성

9)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과 고대 한국의 벌음(別邑)과 소도(蘇塗).” 『구약논단』, 제42집(2011), 126-143; “구약의 노비 해방법과 조선 후기 노비 현상.” 『구약논단』, 제43집(2012), 154-174; “구약의 노비관과 조선 초기 천민사상(天民思想).” 『구약논단』, 제48집(2013), 167-191; “노헤미야와 문무왕의 노비 이자금지 와 채무면제.” 『구약논단』, 제51집(2014), 167-197; “회년 공동체와 한국.” 『구약논단』, 제55집(2015), 93-118. 정중호는 매년 한국의 옛 사회제도와 고대 이스라엘의 제도를 비교하는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평행주의(parallelism)에 입각해 있다. 이 방법론은 주로 고대 중동과 고대 이스라엘 문헌비교에서 상호(영향)관계를 살필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과 고대 이스라엘은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관이 없기 때문에 상호관계를 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중호의 연구는 상호 연관성이 없어도 가능한 인류학적 접근의 하나인 ‘교차문화적 접근(cross-cultural approach)’이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속적인 연구의 심화와 더불어 기계적인 적용을 피하기 위해 방법론적 성찰을 병행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10) 왕대일, 『기독교 경학(經學)과 한국인을 위한 성서해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을 강조한다. 경전의 글을 보지만 말고, 이해하지만 말고, 지니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암송하면서 통(通)으로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자고 주장한다(26쪽).

왕대일의 이와 같은 주장은 서구에서 발원하여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한국에 상륙하여 역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성서해석 방법론에서 벗어나 동양적, 좁혀서는 다산 정약용의 경학이해의 정신을 준용하여 소위 기독교 경학의 전통을 수립하려는 의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숙고하고 다듬어 낸 저서인 까닭에, 그리고 단지 학문적 관심에서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대한 실천적 관심에서 나온 까닭에 매우 소중한 열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본문을 수지독송 할 것인가 하는 단순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구약학자들은 마소라 본문을, 평신도들은 개역개정판을, 혹은 영어성경의 경우 어떤 번역본을 읽고 또 읽고 외워 마음으로 통할 것인가. 그리고 익숙하게 암송하는 순간 암송의 구속력으로 인해 비판적 성찰의 정신이 약화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성서해석의 길을 분명히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저서 중심으로 살펴본 이상의 연구들 외에도 넓은 의미의 한국적 성서학(구약학)의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일찍이 감리교단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토착화 신학과 70~80십년대 권위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전개되었던 민중신학, 그리고 문화신학회를 중심으로 한 문화신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신학자들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들의 신학적 성찰은 성서학의 영역을 넘어 포괄적인 신학적 성찰의 차원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해두는 것에 만족하고, 앞에서 소개한 구약학자들 외에 한국적 구약학의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였던 곽노순,<sup>11)</sup> 김정우,<sup>12)</sup> 서명수,<sup>13)</sup> 강성열<sup>14)</sup> 등의 연구가 있음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학자들의 글이 존재할 것이다.

### 3. 한국적 구약학 연구를 위해 고려해볼만 한 주제와 영역들

#### 1) 원형적 심성의 관점에서 본 고대 이스라엘인과 한국인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보편성과 보편성의 요소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인간은 불가피하게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학은 인류학과 상대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단적인 예로 ‘Anthropology’가 학문적 맥락에 따라 ‘인간학’의 의미로, ‘인류학’의 의미로 통용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어떤 사회, 어떤 문화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 그 사고와 행동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sup>15)</sup>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한국의 오랜 역사와 사회문화의 영향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인에게는 오랜 세월 한국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어떤 공통의 심성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인데, 그것, 한국인의, 한국인만의 심성적 특질 혹은 특성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흔히 포괄적인 의미의 한국학

- 
- 11) 곽노순, “한국 성서학의 민족신학적 조명,” 조성노 편, 『민족신학의 모색』(서울: 현대신학연구소, 1992); “삼국유사와 성서,” 『한국의 문화와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77-306.
  - 12) 김정우, “다산 정약용과 브레바드 S. 차일즈의 유신론적 경전해석학 비교연구,” 『종교연구』, 38(2005 봄), 61-92.
  - 13) 서명수 “아브라함과 군자상,” 『구약논단』, 제31집(2009), 32-51; “맹자의 인의 사상과 구약의 공의 사상,” 『구약논단』, 제41집(2011), 83-97; “중용의 관점에서 본 전도서의 ‘새로운 지혜,’” 『구약논단』, 제47집(2013), 183-204.
  - 14) 강성열, “구약성서와 21세기 한국문화,” 『구약논단』, 제36집(2010), 154-178.
  - 15) 인류학을 분류할 때 크게 ‘사회 인류학’(Social Anthropology)과 ‘문화인류학’(Cultural Anthropology)으로 분류하는데, 전자는 주로 영국 학자들이, 후자는 미국의 학자들이 선호하는 용어이다. 과거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영국에서는 어떤 종족을 이해할 때 그 종족의 사회구조와 구성요인들에 대해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반면, 식민지를 거느리지 못했던 미국의 학자들은 문화적인 측면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연구영역에서 제기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되기 쉬우나 어느 특정 학문 분야에 전속될 수 없는 ‘열린 질문’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적 구약학’을 논하는 마당에서 이 질문은 던지는 것은 결코 과도한 시도는 아닐 것이다. 요즘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신학적 관심에는 ‘신학적 인간학’(Theological Anthropology)이 있다. 주로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명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인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포괄적인 이 질문의 세부 질문으로 ‘한국적 구약학’의 관심 대상은 무엇이어서 하는가를 질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필자는 먼저 ‘한국인의 원형적 심성’의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흔히 한국인의 원형적 심성으로 ‘은근과 끈기’, ‘경천애인(敬天愛人)’, ‘한(恨)’, ‘한얼’, ‘원융(圓融)’, ‘포월(包越)’, ‘해학(諧謔)’, ‘정성(精誠)’ 등이 제시되곤 한다.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서는 어떤 원형적 심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정확히 일치하는 심성적 요인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숙고하노라면 뭔가 의미 있는 단서나 연결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경천애인’의 경우 이것은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으로 한국인과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원형적 심성 비교의 한 가로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마22:37-40; 막12:29-31; 눅10:25-28). 유가 사상에서 하늘(天)과 하늘의 뜻(天命)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됨의 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이 하늘의 인격성과 비인격성, 어짐(仁)과 어질지 않음(不仁)의 문제, 그리고 한국인 고유의 하늘과 하늘 주관자에 대한 개념적, 정서적 이해를 파악하고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한국적 구약학의 심층을 더욱 깊이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간섭과 침략을 감내하며 지난(至難)한 생존의 길을 걸었던 두 민족의 역사적 유사성에서 비롯되는 민중들의 한

의 정서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민족의 심성에 자리 잡은 ‘하나의/큰 얼(한얼)’을 찾아 비교하는 것도 크게는 신학적 인간학, 세부적으로는 한국적 구약학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제가 될 수 있다.

## 2) 고대 이스라엘인과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을 지배하는 바탕 찾기

한국인의 원형적 심성의 문제를 생각하다보면 쉽사리,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한국 종교문화의 특징은 매우 독특한 것이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중동 지역이나 유럽을 포함한 서구지역의 종교문화와는 사뭇 다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유구한 종교문화는 극히 짧은 시간에 완전히 이슬람 종교문화로 채색되고 말았고, 오랜 역사와 신화적 전통과 종교문화를 가지고 있던 헬레니즘 문화권은 기독교 종교문화로 채색되었으며, 유럽 역시 기독교 이전에 지역마다 나름의 고대 종교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으나 완전히 기독교문화로 대체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구와 중동지역의 종교사는 대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최초의 외래종교인 불교가 들어 오기 전에는 무속(巫俗)이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종교의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무속의 토대 위에 불교라는 종교가 자리 잡아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종교문화를 형성하였다. 그 위에 조선시대에는 유교문화가 자리를 잡아 또 하나의 층을 형성하여 상호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성장 발전해왔다.<sup>16)</sup>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기독교가 또 하나의 종교문화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래에는 불가피하게 이슬람 종교문화층도 한국의 종교문화층의 하나로 대두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한국 종교문화의 특징은 그 어떤 종교도 다른 종교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상호 공존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여전히 현실

16)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15-39.

종교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종교문화의 특징은 양파와 같은 ‘겹’의 문화로 상호성과 진화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모든 종교가 대체되지 않고 공존하며,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해가고 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명백한 한국의 종교문화의 특징과 전통 위에서 이와는 사뭇 달라 보이는 히브리 종교문화의 백미인 구약성경을 ‘한국적’ 또는 ‘한국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성서문화 해석학(Biblicocultural Hermeneutics)의 차원에서 해명하는 것도 한국적 구약학의 한 탐구 영역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종교문화의 바탕인 사머니즘과 히브리 종교문화의 바탕인 야위즘(Yahwism)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포용성과 배타성을 비교하면서 그 ‘사이(between)’의 의미를 추구한다면 그 역시 한국적 구약학의 한 가로축이 될 것이다.

### 3) 강대국의 영향과 약소국의 자기정체성-수용과 저항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와 고대 히브리민족의 역사는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약소국가/민족으로서 주변 강대국의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도 쉽사리 동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며 수용과 저항 사이에서 자기만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다는 점이 그렇다. 히브리인들이 수용과 저항을 통해, 그리고 수용과 저항의 사이에서 확립한 자기 정체성의 중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종교성, 즉 야웨신앙(Yahwism)이다. 그렇다면 비슷한 역사의 틀 안에서 지난한 생존의 길을 걸어온 한국인은 그 중심으로 무엇을 형성해냈으며, 어떤 정신성을 중심으로 삼아왔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간문화적 성찰은 구약 연구자의 사유의 지평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한국적 구약학의 가능성을 향한 심층적 탐구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함석헌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성찰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에 대한 평행적 비교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4) 탈식민주의적 연구(postcolonial research)

일제의 한반도 강점은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기이자 가장 큰 후유증을 남긴, 한국 근현대사의 모든 핵심 이슈의 진원(震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랜 전통의 단절, 민족분단, 친일청산의 문제, 작금의 이념적 대립,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한일관계, 영토분쟁 등 모든 핵심 이슈들은 사실상 일제의 한반도 강점에 그 뿌리를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서학계는 그간 이에 관한 성찰에 너무 인색하였다. 식민주의의 문제와 그 극복 방안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탈식민주의적 연구는 한국 구약학계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19-20세기에 전개된 제국주의 시대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극히 부진하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그간 우리가 얼마나 서구적 성서학 연구에 치중해왔는가를 말해준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학문적 경향이나 사조의 차원을 넘어 한민족의 역사적 현실을 직시하고 실사구시의 차원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처럼 역사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제강점기와 관련하여 탈식민주의적인 관점에서 연구해볼만한 영역들을 찾아보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 (1) 일제강점기의 성서해석/설교 경향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신학적 성찰은 학문적(성서학적) 차원에서 볼 때는 아직 미숙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설교를 위한 성서해석, 즉 고난 받는 민족과 민중들을 위한 위로의 설교와 해방의 실천을 위한 용기와 결단의 설교는 분명 선포되었다. 반대로 친제국주의적 성서해석과 그에 따른 친일설교 역시 자행되었다. 이런 상반된 성서해석과 설교의 근거들을 성찰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바빌론 포로기 전후 유다에서 전개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인식의 근거가 되는 전승의 차이와 해석의 문제(예,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에서 이르게 된다. 필자가 과

문한 탓이지 모르나 아직 일본제국주의와 바빌론제국주의의 압력 하에서 보여준 한국인(조선인)과 유대인의 협력과 저항의 문제를 유비적 상상력을 가지고 연구한 극히 드물다.<sup>17)</sup>

19세기 영국, 특히 스코틀랜드 하이랜드(Highland) 지역에서 지주들에 의해 토지나 목초지에 대한 소작권을 빼앗긴 농부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장 빈번히 그리고 강력한 설교의 주제로 채택된 성서의 주제는 ‘출애굽-정복/정착 모티프(Exodus-Conquest/ Settlement Motif)’이었다. 지주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하이랜드는 이집트와 같은 곳 이기에 벗어나야 했고, 가나안과 같은 신대륙으로 이주해가는 것은 꼭 필요한데 앞에 홍해에 해당하는 대서양이 놓여있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들어간 이주민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에 해당하는 원주민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당시의 설교자들은 ‘출애굽-정복/정착 모티프’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였다.<sup>18)</sup>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어떤 성서의 주제, 어떤 성서본문을 주로 활용하여 해방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친일파 설교자들은 또 어떤 신앙논리와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친제국주의적 메시지를 전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며, 한국적 성서학(구약학) 연구에 있어 꼭 탐구영역이라 하겠다.

## (2) 일제강점기의 저항운동과 히브리 예언자들의 저항의 영성

일제의 한반도 침략이 노골화 하는 시점에서 일어난 수많은 저항운동과 한일합방 이후 전개된 독립운동은 서구 제국주의의 부당한 지배를 경험했던 타 지역들(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에서

17) 박동현이 선교 제1세기 교역자인 이원형의 성서해석과 설교에 대해 쓴 것은 참고할만한 예라 하겠다. “선교 제1세기 한국 교역자들과 구약성서-봉경 이원형(1886-1958)의 경우-.” 『구약논단』 9집(2000), 383-401.

18) David F. Wright, *The Bible in Scottish Life and Literature*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88), 179-191.

전개된 저항운동에 비해 훨씬 강력했으며, 그 저항의 정신은 역설적으로 수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민족의 역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 저항의 정신, 저항의 영성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히브리 예언자들 역시 강대국의 영향을 운명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저항의 영성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저항은 내부적으로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배 권력을 향해, 외부적으로는 부당하게 간섭하고 지배하려는 외부세력을 향해 분출했는데,<sup>19)</sup>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명멸했던 여러 저항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부패한 내부권력과 위협적인 외부세력에 대항하여 분연히 전개된 동화농민 혁명과 일제의 폭압에 항거했던 수많은 독립운동에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두 민족의 역사에 새겨진 저항의 정신, 저항의 영성을 구약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 역시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이다.

### (3)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문제

일제의 억압과 수탈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단의 사람들은 새로운 활로를 찾아 자발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일굴 땅을 찾아 간도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징용을 피하여, 어떤 이들은 돈벌이를 위하여, 어떤 이들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지역으로, 하와이로, 남미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삶의 정황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자발적 이주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다. 반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집되어 여러 지역으로 가 노역에 시달리다 돌아오지 못하고 현지에 남아 살거나, 전후 스탈린 정권에 의해 또 다시 낯선 곳으로 강제 이주하여 살게 동족들의 수도 적지 않다. 오늘날 일본이나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

---

19) 고대 이스라엘에서 주전 8세기 문서예언자들의 출현은 앗시리아의 위협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David Aberbach, *Imperialism and Biblical Prophe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3)를 참조하라.

에 속한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때 형성된 한민족 디아스포라 제I세대이다. 이에 더하며 6.25 남북전쟁 후 피폐해진 조국의 현실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기보다는 신대륙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기회 닿는 대로 이민의 길을 택하였다. 이러한 이민의 물결은 70년대 정치적 권위주의에 염증을 느껴 이민의 길을 택한 정치망명적 이민자들까지를 포함한다. 이들은 민족분단의 현실이 만들어낸 한민족 디아스포라 제II세대에 속한다. 해외이민의 물결은 소수이지만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이민지도 다양화 하였다. 이들은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난 이들로 제III세대에 속한다 하겠다. 이들 제III세대 이민자들은 제I세대의 생존형 이민이나 제II세대의 생계형 이민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들은 교육 문화형 이민자들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한민족 근현대사의 굴곡과 궤를 같이 하는데, 이것의 시초와 핵심에는 일제강점이 자리 잡고 있다. 제I세대 디아스포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제II세대 디아스포라의 직접 원인인 남북전쟁도 그 원인은 일제의 한반도 병탄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학도로서 역사적 관점에서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취급한다면 제I세대와 제II세대 디아스포라를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한민족의 역사와 고대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가장 밀접히 근접비교 할 수 있는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디아스포라의 문제일 것이다. 고대 히브리 민족사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주전 8세기와 남유다가 멸망은 주전 6세기에 대대적인 디아스포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연구테마로 설정한 논문은 눈에 띄지 않는다.

#### (4) 분단국가의 현실과 역사인식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특별히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일제의 억압



에서 해방된 한민족은 곧 이어 전개된 세계냉전 체제의 도래로 인해 38도선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고, 6.25 남북전쟁을 거친 후 휴전선을 기점으로 분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한민족이 쟁취하여야 할 최대, 최고의 역사적 과업은 역시 남북통일의 문제일 것이다. 고대 히브리 민족 역시 200년간 남북으로 분단된 역사적 경험이 있으며, 제2성전 건축기에 유다와 사마리아가 다시 분열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 남북통일이 시대의 화두이자 역사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두 민족의 역사에 떠오른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비교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5) 한국인의 성서해석에 대한 연구

넓은 의미에서 한국적 구약학의 범주 안에는 한국인의 성서해석에 대한 연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성서조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활동했던 김교신, 한글의 독창성과 그 뜻에 대한 탁월한 철학적 성찰을 보여주었던 다석 유영모의 성서해석, 일제강점기 독특한 신비적 영성으로 민족과 민중의 아픔을 표현하고 위로했던 이용도의 성서해석과 설교, 제1세대 구약학자에 해당하는 김정준의 서구 구약학 수용과 체득, 김찬국의 인권의식과 성서해석, 기타 제2세대에 해당하는 일군의 구약학 교수들의 성서해석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sup>20)</sup>

## 4. 끝맺는 말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경전해석에 있어서 자국의 정신과 상황에 맞는

---

20) 성서학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한국의 신학사적 정리를 위해서는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서울: 전망사, 1982)을 참고 할만하다. 여기에는 성서해석에 관한 언급들도 상당수 들어있다.

연구와 해석보다는 중국인의 그것을 더 중시하는 ‘무원홀근(務遠忽近)’의 풍조에 대해 통탄 한 바 있는데, 우리는 다산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동안 너무 서구적인 것에 경도된 나머지 한국적인 것의 발견과 개발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앞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한국적 구약학의 맹아(萌芽)가 몇몇 연구자들의 묘판(苗板)에서 이미 싹트고는 있었다. 그런데 그 싹이 보다 튼실하게 줄기로 자라고 가지를 뻗을 수 있도록 연구자 자신도 꾸준히 학문적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학계의 다른 연구자들도 주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양적으로는 두터운 연구자 층을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질적으로는 내세울만한 수준의 업적과 업적의 총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적 구약학의 가능성을 위한 탐구영역과 내용에 관한 논의는 필자가 본론에서 범례적으로 제시한 것들 외에도 연구자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요청되며, 학회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간에 발표된 값진 연구물들의 목록이나 자료 모음집 등을 발간하여 한국적 구약학의 가능성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 5. 참고문헌

강성열, “구약성서와 21세기 한국문화.” 「구약논단」 제36집(2010), 154-178.

\_\_\_\_\_. “한국의 구약학: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제98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61-304.

곽노순, “한국 성서학의 민족신학적 조명.” 조성노 편, 「민족신학의 모색」 (서울: 현대인학연구소, 1992).

\_\_\_\_\_. “삼국유사와 성서.” 「한국의 문화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1992), 277-306.
- 김상래, “한국인 구약학 박사학위에 나타난 학문적 경향 분석.” 『구약논단』 39(2011), 179-206.
- 김의원, “한국 구약신학의 진단.” 『개혁사상』 2(1989), 48-71.
- 김정우, “다산 정약용과 브레바드 S. 차일즈의 유신론적 경전해석학 비교 연구.” 『종교연구』 38(2005 봄), 61-92.
- 박동현, “선교 제1세기 한국 교역자들과 구약성서-봉경 이원영(1886-1958)의 경우-.” 『구약논단』 9집(2000), 383-401.
- \_\_\_\_\_. “구약학의 흐름과 미래.” 김동건(엮음), 『신학이란 무엇인가: 구약학에서 신학의 조망까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41-71.
- 문희석, 『한국교회 구약성서 해석사: 1900-1977』(서울: 기독교서회, 1978).
- 민영진, “1970년대 구약신학.” 『신학사상』 36(1982), 5-36.
- 박신배, 『태극신학과 한국 문화』(서울: 동연, 2009).
- 박정세,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 연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 박종수, 『히브리 설화 연구: 한국인의 문화통전적 성서이해』(안양: 도서출판 글터, 1995).
- 서명수 “아브라함과 군자상.” 『구약논단』 제31집(2009), 32-51.
- \_\_\_\_\_. “맹자의 인의 사상과 구약의 공의 사상.” 『구약논단』 제41집(2011), 83-97.
- \_\_\_\_\_. “중용의 관점에서 본 전도서의 ‘새로운 지혜’.” 『구약논단』 47(2013), 183-204.
- 왕대일,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진단과 전망.” 한국문화연구원(편), 『신학 연구 50년』(서울: 도서출판 혜안, 2003), 47-92.
- \_\_\_\_\_. “Retrospect and Prospect of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구약논단』 37(2010), 12-26.

- \_\_\_\_\_. 「기독교 경학(經學)과 한국인을 위한 성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 \_\_\_\_\_. 「한국신학의 광맥」 (서울: 전망사, 1982).
- 이형원, “Trends in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and Proposals for the Futher.”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57(2008), 5-24.
- 임태수,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전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2(2001), 99-117.
- 정중호, 「새로운 성경해석 한국적 해석 서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10).
- \_\_\_\_\_.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과 고대 한국의 별읍(別邑)과 소도(蘇塗).” 「구약논단」 42(2011), 126-143.
- \_\_\_\_\_. “구약의 노비 해방법과 조선 후기 노비 현상.” 「구약논단」 43(2012), 154-174.
- \_\_\_\_\_. “구약의 노비관과 조선 초기 천민사상(天民思想).” 「구약논단」 48(2013), 167-191.
- \_\_\_\_\_. “느헤미야와 문무왕의 노비 이자금지와 채무면제.” 「구약논단」 51(2014), 167-197.
- \_\_\_\_\_. “희년 공동체와 한국.” 「구약논단」 제55집(2015), 93-118.
- 조철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신화의 비밀」 (서울: 김영사, 2003).
- 한동구,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전망(1): 연구 방법론과 오경.”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0(2007), 5-48.
- \_\_\_\_\_. “구약논단 50집을 맞이하며: 회고와 전망.” 「구약논단」 50(2013), 15-29.
- 황성숙, “한국 구약학의 역사: 구약에 관한 자료를 통해 고찰한.” 「신학연구」 18(1977), 195-224.

Aberbach, David. *Imperialism and Biblical Prophe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3.

Wright, David F. *The Bible in Scottish Life and Literature*.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88.

검색어

원형적 심성

종교적 심성

다경전적 상황

탈식민주의

성서문화 해석학

## An Investigation on the Possibility of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Myung-Soo Suh,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yupsung University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to describe the trend and range of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Some of them suggest the prospect of as well as the retrospect of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But in most cases the attempts were only as such. The prospect and suggestion have not been adequately reflected in the researches that follow.

This paper basically calls for the reflection of the situation, that is, Korean biblical scholars' negligence of the vernacular hermeneutics. The great Korean scholar Dasan Jung, Yak Yong already criticized the imitative attitude to the Chinese tendenc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fucian canon. He called it '婁遠忽近'(faithfulness to the foreign and negligence of the vernacular).

Thus this paper suggests new directions as a prospect for the future studies of the Old Testament in Korea: Firstly, the comparison of Korean archetypal mind with the Israelite mind. Secondly, the comparison of Korean religious mind with the Israelite religious mind. Thirdly, the influence of a powerful country upon less powerful countries (resistance and reception). Lastly, biblical interpret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ism.



## Keywords

Archetypal Mind

Religious Mind

Multi-scriptural Context

Postcolonialism

Biblicocultural Hermeneutics

- 투고일: 2015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5년 10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11월 06일